

# 풀뿌리 현장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들

글 · 박미혜 parkmh11@naver.com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등록금인상에 반대해 단식하고 삭발투쟁 했던 때가 떠오른다.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등록금인상 문제는 졸업할 때까지 매년 학생회와 학교의 갈등요소가 되었다. 반복되는 총학생회의 투쟁에 '싸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학생들 복지에나 신경 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는지 3학년이 되던 해 총학생회선거에서는 등록금인상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가 아닌 학생들 복지에 신경 쓰겠다고 공약을 건 후보가 당선됐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읽지 못하는 것이 비단 대학총학생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시민운동 역시 7·80년대에 비해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세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성찰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시민운동의 방향 중 하나가 바로 풀뿌리운동이다. 이슈에 대응해 움직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삶속에서 그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현장에서의 운동이 강조되고 있다.

## 풀뿌리 현장 활동가들이 부딪히는 벽들

지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부대끼는 현장 활동가들, 특히 시민교육활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현장 활동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을까. 현장 활동가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은 대부분 비슷비슷 할 것이다. 교육환경의 어려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부족, 예산의 부족,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 교육 참여자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벽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질문할 거리를 적어 시민교육을 진행해본 활동가가 있는 단체를 돌아다니며 물어보고 다니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하지 않게 된다.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많으면 10명 내외(위탁기관 운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 적으면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 담당 실무

자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있다 해도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 하나에 많은 실무자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함께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교육을 준비해 놓고도 모집이 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함으로 이어져 현장에서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활동하던 동료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단체로 이직 할 때 많은 회의에 빠지곤 한다. 현장 활동가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이직이 주민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교육 참가자가 고정적으로 있어 모집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 한 곳, 즉, 좀 더 편하고 안정된 곳으로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직이 잦다면 현장에 남아있는 활동가들은 정말이지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위한 제안

위와 같이 부족하고 어려움 점이 많은 풀뿌리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 번째,** 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강사를 배출해 내는 것이다. 초반에는 예산이 많이



평화교육

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지역 안에서 강사를 세워갈 수 있다. 그리고 강사 양성교육은 후속모임을 형성하기에도 좋은 교육 중 하나이다.

안산풀뿌리환경센터의 경우 생태안내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현재는 교육받은 강사들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시민들을 위한 생태안내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작년 안산YMCA에서는 평화교육 강사양성과정과 에니어그램 강사양성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짧은 교육을 받고 바로 강사로 세워지면 전문성 부족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심화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지역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섭외의 어려움, 강사비 걱정, 강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원하던 강의내용을 얻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많다.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의 주최로 진행된 2009시민예산학교는 안산 경실련 사무국장, 안산시 기획예산과장, 전(前)공무원노조안산지부장 등 모든 강좌가 지역 내 강사로 채워졌다.

또한 강의경험이 없는 현장 활동가들이 강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새로운 강사를 세워주고 발굴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난 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대학에서는 활동가가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이 지역전문가로 키워진다면 활동가의 잦은 이직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예 : <2009 시민예산학교의 내용과 강사진>

내용		강사
예산의 개요와 시민참여예산의 의의		김경민(안산경실련 사무국장)
안산시 예산의 개요		안산시 기획예산과
2009 안산시 분야별 예산검토 (그룹별)	기획행정분야	김두수(공무원노조안산시지부)
	환경녹지분야	신남균(안산의제21사무국장)
	도시교통분야	류흥변(안산YMCA 사무총장)
	복지분야	이진경(안산여성노동자회회장)
예산검토결과 그룹 논의	기획행정분야	참여예산네트워크위원
	환경녹지분야	
	도시교통분야	
	복지분야	
종합논의		

**세 번째,** 지역의 행정, 전문기관, 대학,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를 구성하면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구할 수 있어 완성도가 높아지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참가자 모집이 수월해 지고, 동시에 예산확보의 길이 열린다.

2009년 진행했던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함께 주최해 지역의 도시디자인과 건축에 대해 연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진행되는 마을디자인대학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정, 민관협력기구, 대학,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의 장으로 준비되었다.

**예 : <2010 도시디자인대학 참여주체와 역할>**

구분	참여주체	역할
대학교	한양대학교	지도교수/조교 인력 및 교육공간 제공
민관(협력)기구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행 실무, 예산, 수강생 모집(사무국 역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의제21	진행, 수강생 모집
	푸른경기21	강사, 예산지원
시민(사회)단체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 도시연대	강사, 수강생 모집
전문가	안산건축사회	실무 자문
행정	안산시	사업시행 협력

**네 번째**로는 교육이후 후속활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 부분은 풀뿌리 현장이 갖는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접함으로 교육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후속모임을 이어갈 요소가 중앙에 비해서는 큰 것이다. 후속모임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에 그 모임이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작년 평화교육 강사양성과정 이후 만들어진 동아리 회원 중 한분은 ‘처음에는 그저 아이문제로 강의를 듣게 됐지만, 점차 내 아이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고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도 달라졌다고 한다. 동아리 모임을 지속하면서 활동가 역시 함께 회원들과 공부하게 되고 회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섯 번째**, 지역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각 지역마다 많은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기획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가들의 소통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의 규칙을 마련하여 각자의 교육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모아가다 보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유익한 시민교육자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공공디자인 학교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앙단체나 재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름길은 활동가들의 변화와 성장**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 했지만 앞서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은 각자 단체에서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 단체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가 중요하다. 즉, 단체의 정체성과 함께 활동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서의 고민 상담이나 두꺼운 책을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자신의 활동이 갖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기얘기만 해서 강의시간을 다 잡아먹는 사람,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 때로는 활동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많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 활동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성장해간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긴다. 그리고 많은 강사와 시민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배워 간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모두 성장을 위한 고통이었던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은 이렇게 잠깐 쉬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전에 대해 공유할 곳이 있어야 한다. 각자가 속한 단체에서 나눌 여유가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자신의 활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활동가 교육에 참여하던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활동가 소모임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풀뿌리 현장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차원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글 박미혜 | 안산YMCA 사회교육 담당